

통일 칼럼

북·중·러 삼각 연대 움직임

최근 북한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대가 불살을 가르며 선착장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요트에 올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것이다. 평양이 아닌 바닷가 원산으로 초대해 호화 요트에 태워 극진히 환대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운항하는 요트 안에서 진행됐다. 에어컨이 설치된 요트 내부에는 금장 장식이 더해진 테이블과 의자 등 고급스런 내장재들이 눈에 띈다. 면담에서 김정은은 북러 간 유대 강화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고, 라브로프는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일을 수호하기 위한 두 나라 양국 지도부의 의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모든 합의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이 아닌 원산으로 방북하고, 김정은이 요트에서 외국 사절을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달부터 문을 연 북한의 복합 리조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러시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러 외무장관 간의 전략대화 역시 원산에서 열렸는데,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이해한다며, 남북관계 문제도 전적으로 북한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13일 “라브로프 장관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조선 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했다. 사흘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친 라브로프 장관은 곧바로 중국으로 향했다. 이에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평양에서 코로나19로 끊겼던 베이징행 열차와 상하이행 비행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빚는 러시아가, 북중러 삼각 연대의 강화에 나선 모양새다. 이는 군사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러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결국은 한반도 안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세 나라가 삼각 협력의 틀로 묶이는 것에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우호조약 체결 64주년 기념 연회를 성대히 개최하는 등 북중 관계 복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과 베이징 간 열차 운행 일정이 다시 공지됐는데, 실제 재개되면 5년 6개월 만이다. 또 현재 운항 중인 평양과 베이징 간 항공편 외에 상하이 노선도 부활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등 사안에서 미국과 마찰을 내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중국과의 우호 관계 다지기에 바쁜 모양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불안정한 세계 질서 속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양이 외교부장은 “양국은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가 불러온 도전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 중, 러의 삼각 연대 움직임이 주목된다.

사설

전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급증

전북 지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급증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국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총 271만 9185명이다. 이 중 전북 지역에서는 1만 1171명(5.9%)이 작성했다. 특히 전북은 19세 이상 인구 대비 10.7%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전국 1위의 비율을 보였다.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의향서를 작성한 전수는 2022년 851건, 2023년 775건, 2024년 3000건, 2025년(6월 기준) 96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자 수는 14만 6882명으로 불과 6개월 만에 1만 4489명이 증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가 건

강할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사전에 등록해 두는 제도다. 서류 작성 이후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면 임종과정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의 판단 하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의향서 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홍보 강화와 인식 변화가 꼽힌다. 먼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찾아가는 상담소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홍보를 추진했다.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힘든 집을 지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하고 싶다”고 말한다.

전주평화연합(UPF) 정책간담회

2025 전주평화연합(UPF)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월 21일 UPF 회의실에서 도 의원 및 시군 회장단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자고 뜻을 모았다. 무더위 속에 진행 중인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등 지역에서 평화통일운동 활성화에 다 같이 힘을 모아가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의 사명, 통일과 평화, 환경, 참가정을 중심으로 한 평화통일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했다. 실천 방안으로 단체별 월례 간담회 실시, 평화통일 아카데미 실시, 평화행동 프로젝트 적극 동참, 평화통일 교육 강사 역할, 평화지도자 발굴 등을 강조했다. 정병수 UPF 전북회장은 “통

일운동의 성공은 지역 현장에 서부터 시작된다”며 평화야가 데미의 시·군 확대 운영, 산수원 애국회를 통한 기후환경 실천 운동, 피스로드 통일대장정 확대 개최, 언론 홍보 활동 적극 추진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풀뿌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자립운영(CMS 확대) 체계 강화 및 신규 평화대사 위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 및 시군의 회장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그밖에 일선 시군 현장에서 단체의 평화통일 운동에 지속적으로 같이해오고 있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치하했다. 2025 전주평화연합(UPF)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간담회가 전북지역 평화통일 운동의 발전적인 실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하차노프 꺾고 환호하는 셀턴



벤 셀턴(7위·미국)이 지난 7일(현지 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내셔널뱅크 오픈(ATP1000) 단식 결승에서 카렌 하차노프(18위·러시아)를 물리친 후 환호하고 있다. 셀턴이 2-1(5-7 6-4 7-3)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정상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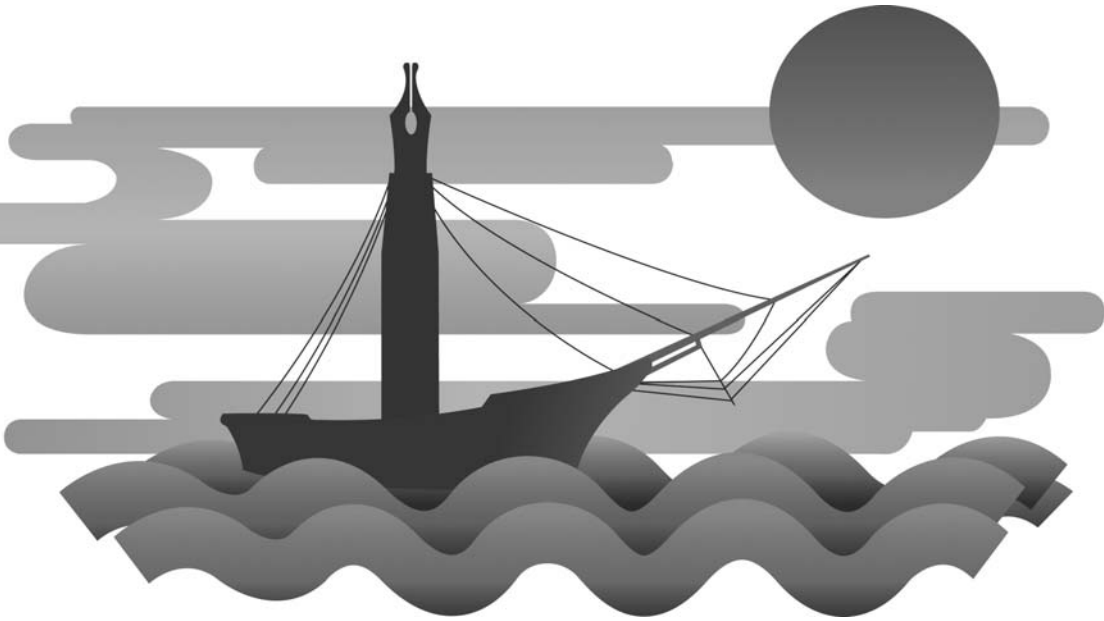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서 묵념하는 참배객들



지난 8일 일본 나가사키 평화공원 인근에서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식에서 재일 한국인들과 일본인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우라늄 원폭 '리틀 보이'(Little Boy)를, 9일에는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원폭 '팻맨'(Fat Man)을 투하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